

김현미 장관, “설 연휴 시작과 끝은 안전운행” 강조

1일 기흥휴게소서 교통안전캠페인…설 연휴 안전운행 거듭 당부

-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(금) 오후 2시 30분부터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(부산방면)에서 설 연휴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.
- 캠페인에는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,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장,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,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회장,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등 교통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, 안산 단원 모범운전자회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.
- 캠페인 시작 전 ‘교통안전 결의대회’에서 김 장관은 ‘교통사고 박 깨기’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설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.
- 특히, “술을 마셔도, 졸려도 운전대를 놓지 않는, 아직도 이 사회에 남아있는 이번 한 번쯤이야, 나는 괜찮겠지 하는 운전행태가 시급히 바뀌어야” 한다면서,
- “지난 해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로 37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, 소중한 생명을 너무나 허망하게 앗아가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반드시 줄여야 하고 또 예방할 수 있다.”라고 재차 강조했다.
- 아울러, “정부는 이번 설 연휴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 예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.”라며, “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,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으며, 졸리면 쉬어가는 안전한 운행습관을 실천하면 교통사고 사망자 없는 설 연휴가 될 것”이라고 전했다.

- 김 장관은 이어진 캠페인에서 사전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껌, 생수 등 **졸음운전 방지용 물품**과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,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**홍보물** 등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.
- 이와 함께,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개발 중인 블랙박스 카메라를 이용한 **첨단단속장치** 시연회, 화물차를 대상으로 **후부반사띠** 무상 부착 지원 등도 함께 진행됐다.

2019. 2. 1.

국토교통부 대변인